

# 낭만도시 맘껏 즐기세요...여수에서 한달 여행하기

맞춤형 관광 이벤트 19일까지 신청  
여수 구석구석 돌아보고 다양한 체험  
관광 앱 출시 기념 경품행사 풍성  
시, 하루 5만원 숙박비 지원도

1500만 해양휴양관광도시 여수시가 '남도 여수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기에 관광안내 전문 앱 출시를 기념한 경품행사 등 풍성한 맞춤형 관광 이벤트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유혹하고 있다.

'여수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은 여수가 보유한 천연의 아름다운 관광자원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여수시와 전라남도 시가 함께 마련했다.

여수시는 참여 관광객들에게 7일부터 최고 30일 동안 하루 5만원 이내의 숙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섬·갯길 걷기와 음악·예술 공연, 어부의 밤 상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참가 관광객들은 여행기간 중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여행후기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도 제안한다.

여수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만 18세 이상 광주·전남 이외 거주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여행 작가와 파워블로거 등 홍보 전문가들은 우대한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이 여행 정보를 다양화하고 관광객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가 '남도 여수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풍성한 맞춤형 관광 이벤트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여수해양공원에서 밤바다 풍경을 즐기는 관광객(왼쪽)과 금오도 비렁길 전경. <여수시 제공>



참여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8일부터 19일까지 이메일(jex018@korea.kr)로 전송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관광 안내 모바일 앱 '야! 여행!' 출시 이벤트도 마련했다.

지난 1일 첫 선을 보인 '야! 여행!'은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여행'의 줄임말로 길찾기와 캐릭터잡기, 기부걷기 등 편의성과 오락성을 모두 갖춘 맞춤형 관광안내 앱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여수관광문화 홈페이지에서 '삼행시 이벤트'와 '개선사항 신고 이벤트'를 본격 운영한다. 또 여수시 주요 관광지에서 4월 한 달 동안 펼쳐질 '돌림판 이벤트'도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디오션호텔 숙박권과 낭만버스 탑승권, 아쿠아플라넷 이용권, 주간요트투어 이용권, 빅오쇼 관람권, 스카이플라이 체험권,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카트레이싱 체험권 등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린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야! 여행!' 출시와 앱 설치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여수관광문화홈페이지(www.yeosu

.go.kr/tour)에서는 연중 관광후기와 낭만버스 탑승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며, 봄 여행주간(3월25일~5월12일)에는 사진이벤트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관광과(061-659-3862)로 연락하면 된다.

고재의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장은 "4년 연속 1300만 관광도시 여수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맛과 멋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여수 관광을 더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한려지구 도시재생 탄력

뉴딜 공모사업 선정...134억 투입

여수시는 최근 2019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대상지에 한려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수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80억원, 도비 13억원, 시비 41억원 등 134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려지구는 공화동과 한려동, 수정동 등 여수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는 주택과 빈집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여수시는 빈집 등을 정리해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 청년들의 주거 공간을 위해 48실 규모의 청소년 돌봄주택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몰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창업하는 기회도 줄 계획이다.

어울림센터와 비즈니스 센터, 마을박물관, 마을 도서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게 된다.

여수에서는 지난해 문수지구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5월부터 국비 100억원 등 168억원이 투입돼 사업이 시작된다.

여수시는 올 하반기에 국동지구와 전라좌수영 등 동천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남면 화태마을 LPG 안정 공급

산자부 배관망 지원 사업 선정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워 불편을 겪었던 여수시 남면 화태마을 주민들이 LP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남면 화태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여수시는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국비 1억5000만원과 시비 등 7억원을 들여 소형저장탱크, 가스공급관, 가정 내 가스보일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의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스가 떨어지면 LP 가스를 개별적으로 주문해 사용해야 했지만, 배관망이 설치되면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불편이 사라진다.

화태마을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LPG배관망을 마을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9월 산자부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개별적으로 가스를 주문하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기존 LPG 가스통보다는 48%, 등유 보일러보다 20% 가량 연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여수상의 "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폐지 안된다"

준치 촉구 공동 건의문 발표

여수상공회의소가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의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여수상의와 순천·광양 상의 등에 따르면 전남 동부권 3개 시 상의가 지난 3일 발표한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준치 공동 건의문'을 통해 여수출장소 폐지 반대 의사와 준치를 통한 금융지원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관련 자금 대출,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지원 금융을 비롯해 무역금융 보증 및 채권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여수출장소는 지난 2013년 8월 첫 문을 열었다.

수출입은행은 정책성 여신 지원사업 업무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에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현지 금융 지원으로 시장 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영역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여수출장소는 지난 5년 동안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 30여개 지역 기업에 6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부권역 3개시의 연간 수출입 규모도 지난해 기

준 수출입 통관 금액만 725억 달러에 이르면서 경제·인구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울산과 인천에 이어 전국 3위의 높은 실적이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체 혁신안에 여수 출장소 등 4개 지점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지역 기업들과 상공인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 동부권 상공인들은 그동안 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가 실질적인 국가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도 수출입은행이 폐지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수국가산단 등 동부권역 기업들은 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가 폐쇄될 경우 지역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경제적 균형기능도 모두 상실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 출장소 폐쇄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 분산 배치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전남동부권 중소 중견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의 준치'를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여수시청사 현관에 인공지능 안내로봇 배치

여수시는 학동 시청 현관에 인공지능 안내로봇(사진)을 배치하고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안내로봇은 가로 550mm, 세로 570mm, 높이 1650mm 크기로 여수시 안내와 방문객 어울림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방문객이 로봇에게 다가서면 "안녕하세요. 여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는 여수 시청의 새 얼굴 안내로봇입니다. 관광안내, 청사 안내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고 상냥하게 인사를 건넨다.

로봇 머리에는 카메라, 스피커가 설치돼 있고, 화면에 나타난 얼굴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몸통에 설치된 32인치 모니터에는 여수시 소개, 직원·부서 조회, 행사 안내, 관광 안내, 청사 안내, 로봇과 대화, 나를 따라와, 로봇이 잘라, 로봇댄스 메뉴가 활성화돼 있다.

정보 입력은 음성과 키보드 모두 가능하다. 시청 직원의 소속과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 메뉴를 누르고 이름을 말하면 된다.

로봇이 직접 찍어주는 기념사진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음악과 함께 귀여운 로봇댄스도 만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안내로봇이 4차 산업혁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다 풍성한 정보를 방문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4월호

3월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새로운 관광트렌드  
"시티투어"가 즐겁다  
"57년째 떠돌던 정음성 오페라 '망부연'"

**새로운 관광 트렌드 시티투어**

특집

알뜰한 매력의 '시티투어' 마니아 증가  
- 9900원의 행복 '남도한바퀴'  
- 뉴욕의 명물 '더 라이드'

새봄 이야기  
꽃차 전문가가 알려주는  
꽃차의 매력과 음용법

해외 문화 현장  
'세계를 위한 세계의 박물관'  
런던 영국박물관

문화 화제  
정음성 오페라 '망부연' 복원의 두 주역  
연출 정갑근 감독, 번역 양희석 교수

소설가 김용태가 전하는 '내 이웃의 소확행'  
12집 가번으로 관객과 행복 나누는 김용태씨  
"놀이가 일이 되면 일상엔 즐거움이 흐르죠"

예향 초대석

**나무 인문학자 강판권**  
"나무와 더불어사는 삶 권합니다"

문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문학의 숲에 뜬 별들의 고향  
장흥 천관문학관

강제운 시인의 남도의 성과 특속음식  
"윤선도의 무릉도원" 보길도  
최고급 술안주 전북도

트렌드 따라잡기  
세대, 장소 떠나 EDM이 대세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장편 '메이드 인 강남' 펄펜 작가 주원규  
질문 던지는 사진작가 문선희  
KIA타이거즈 영어 특영 담당 도영빈

정음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게오르크 짐멜 vs. 발터 벤야민

전시 리뷰 <이정섭의 스케치 여행이야기>전

한국영화 100년-남도 시네마 산책  
남도 영화사의 증인-광주극장  
예술전문관 지키며 100년을 꿈 꾸다

문화로 함께 떠날 새봄, 순천  
창고, 청춘문화공간으로 변신  
순천만국가정원 불나들이 '떡'